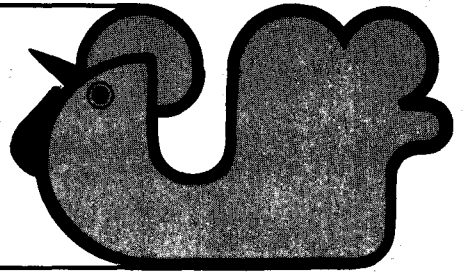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국제경쟁력제고 위한 배합 사료값 인하 등 건의 — 닭고기통조림 수입개방에 따라 —

본회는 7월 1일부터 닭고기통조림 등 일부 축산물가 공식품의 수입개방에 따라 양계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국제경쟁력 저해요인 해결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의문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전양계인을 대표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완전 자급자족을 이루었으며 이제부터는 국제경쟁에 대응키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닭고기 통조림, 돼지고기통조림, 소세지 유사 조제식품 등이 수입개방됨으로써 양축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체에서 수입개방의 확대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아직 국내 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못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다음 몇가지 국제경쟁 저해요인을

선결해야 하므로 건의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양계산물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행정적으로 시정 또는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배합사료 제조용 수입원료에 선진국과 같이 관세 면제
 - 나. 곡물 쿼터제 철폐
 - 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폐지
 - 라. 배합사료 제조용 원료 수입개방
 - 마. 국산 사료곡물(옥수수, 보리)가격의 이중 국가제 적용
2.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까지 당분간 닭고기, 계란은 감시 품목으로 지정운영
3. 계사시설근대화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과감한 지원
4. 처리·가공판매과정의 불합리한 세제개선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정태원

편집위원회 개칭

금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 박사)가 6월 17일(수) 오후 2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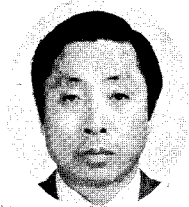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고기 통조림 수입개방에

따라 양계인들이 공동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6월호 검토와 7월호 편집계획을 확정된 후 좌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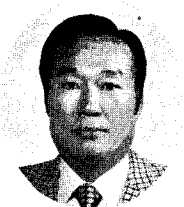
이날 열린 좌담회 내용은 월간양계지 본문에 게재되어 있다.

홍보협찬금 9천5백여만원 모금

— 상반기에 금년목표 63% 돌파 —



△김 현 사장



△박영인 회장



△박옥룡 지부장



△손종현 지부장



△안명수 지부장

'87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 협찬금이 6월 30일 (화) 현재 현물 및 협찬자 집행액을 포함해서 9천4백 65만 9천 2백원이 접수되었다. 전 양계인과 관련업체·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찬금은 계속 접수 중에 있다. 형편상 일시 협찬이 곤란한 분은 협찬액 약속하에 분할납부도 하고 있다.

양계인들의 협찬실적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올해 목표는 1억5천만원으로 상반기(6월까지)에 63

%를 돌파했으며 6월중 5십만원 이상 협찬자(현물협찬 포함)는 다음과 같다.

- (주) 제일제당 식유사업부 : 4,500,000원
- 미국사료곡물협회(회장 박영인) : 4,000,000원
-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 : 1,300,000원
- 기림농원(대표 이형성) : 1,000,000원
-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 : 1,000,000원
- 전북지부(지부장 박옥룡) : 500,000원

본회·지부 임직원 수련대회 개최

— 6월 12일~13일, 충남 계룡산에서 —

본회 및 각도지부 임직원의 유대강화와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본회·지부 임직원 수련회가 지난 6월 12~13일(1박 2일) 계룡산 계룡산장에서 실시되었다.

첫날 만찬회에서 본회 정태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당초계획 이상으로 성공리에 수행하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요즘과 같이 양계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회 및 각도지부 임원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생산자의 권익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올해 협회 중점사업인 홍보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양계인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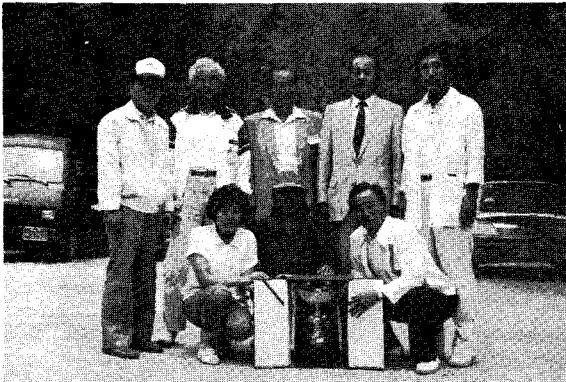
▲ 본회·지부 임직원 수련대회

향제시를 해나가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본회·지부·분회 임직원들의 긴밀한 단합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다음날 신체단련 시간에는 참가한 전임직원 동학

사까지 행진을 하면서 신체단련과 함께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황인옥전무는 본회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도지부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본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또한 농림수산부 중소가 축과 박중근계장의 양계산업 정비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북지부팀

이어 전체오락게임에서는 계란운반릴레이 등 여러 게임이 이루어졌는데 종합우승은 전북지부팀이 차지했다. 본회는 지난해부터 년 1회 임직원수련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회장단에서 전액 협찬했다.

양계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담

— 이인형과장, 김영환소장 초빙 —



(이인형 과장)



(김영환 소장)

7월 1일부터 일부 제한된 품목이긴 하지만 양계산물이 수입자유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양축가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정책추진 방향을 양축가 여러분께 알려주고자 정책실무자(중소가 축과 이인형과장)와 양축가(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소

장)를 초빙해 6월 17일(수) 오후5시 본회 회의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내용은 월간양계 7월호 34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87 소비홍보 협의회 개최

— 1987. 7. 8(수) 오후 7시 —

금년도 제 2 차 소비홍보사업 추진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소비홍보 협의위원들의 많은 참석바란다.

- 일시: 1987. 7. 8(수) 오후 7시
- 장소: 본회 회의실
- 협의안건
- ① '87 전반기 소비홍보사업 결과보고
- ② '87 하반기 소비홍보사업 계획검토
- ③ 기타사항

학교 조리실습 지원

— 8 개교 총 4,870명 대상 —

본회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소비자인 여고생들에게 닭고기·계란 우수성 강의 및 조리실습을 개최하였다.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배화여자고등학교(종로구 필운동 소재),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광영여자고등학교(강서구 신월동 소재)에서 개최된 이번 조리실습은 닭찜, 닭튀김, 스크램블에그 등의 요리를 직접 실습하고 시식했다.



▲ 조리실습이 끝난 후 만든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튀김요리에 쓰이는 식용유는 (주) 제일제당에서 협찬하였다.

'87상반기(6월까지)에 대학을 포함한 여고 8개교에서 연인원 4,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 할 예정이다.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실시

-87년도 제1차-



▲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실시광경

본회는 87제1차 감별사 자격시험을 지난 6월26일(금)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고등 7명, 갑종 57명이 응시하여 치른, 이날 시험에서 고등 1명, 갑종 39명이 합격하여 합격율이 고등은 14%, 갑종은 68%로 작년에 비해 합격율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고등합격자 명단)

양 찬 식

(갑종합격자 명단)

문형기	변상철	신현승	임진성	박성영
임원정	장동인우	석용수	이금표	장금란
김상선	이서희	백운종	곽용숙	김경도
윤석관	강영수	박수찬	이규영	신용원
양찬식	박병준	최효근	김동한	이병중
김태용	최상진	권해창	신용진	오종철
정덕현	김용식	주양경	권춘식	이수범
서연석	오상철	김성구	전명애	(39명)

여성월간지에 계란광고 및 기사게재

-“여원” 6·7월호-

본회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월간지에 계란광고 및 우수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지난 4~5월 “주부생활”지에 닭고기광고 및 우수성 기사를 게재했으며, 6월에 계란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7월호에는 홍문화박사(서울대 명예교수·약학박사)가 집필한 계란의 우수성에 대한 기사를 함께 게재하였다.

6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부산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

지난 6월 27일(토) 부산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6월 육계분과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분과 위원회 활성화 및 선진지 시찰로 분과위원회를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기로 한 바 본회분과위원 및 부산 경남지역 육계업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육계가격은 서울·충청지역이 하이 750~780원 세미 880~900원으로 세미가 강세를 보였고 전북은 730원 경남북은 800~830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초생추가격은 310~400원대를 형성하고 입추는 활발한 편이었고 대체적으로 큰담은 없는편이고 소비가 다소 위축되어 체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질병발생 상황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는편이었다.

7월 1일부터 닭고기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자유화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9월이후에는 영향이 미칠것이 예측되므로 육계사육 계획에 참고하여 줄 것을 요망했으며 그에 따른 경남지역 육계업자 연명으로 수입에 따른 대책으로 곡물쿠티제 철폐, 곡물 수입관세 철폐, 부가가치세 철폐, 국내산 옥수수 보리의 배정중단 등을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육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부산지역 육계생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7월 육계분과위원회는 예정대로 7월 27일(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